



농림부

인사발령, 축산경영과장에 이상수 서기관



◀ 이상수 과장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장에 이상수 서기관(축산물위생과)이 5일자로 과장승진 발령됐다.

또한, 변상문 사무관이 장관실로, 김경두 사무관이 정책홍보관리실로, 박경희 사무관이 국제농업국으로, 정용호 사무관이 농업연수원으로 각각 전보 발령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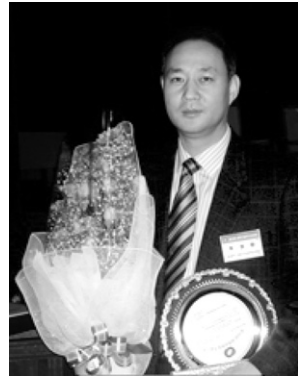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위성환 박사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위성환 박사(방역과장)가

'제1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의 수상자는 국내 300여개 이상 과학전문학회의 회원들이 2005년 발표



한 전체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각 전문학회에서 추천받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위 박사는 지난 2003년 2004년 국내에서 고병원성 시가 발생한 닭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닭에 감염된 이후 동 농장에서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해 독일에서 발간되는 'J Vet Med Series B' 학회지 2005년 12월호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한국가금학회

2007 한국가금학회 1차 임원회의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김기석) 1차 임원회의가 지난 20일 경북대학교 수의과학대학 김기석 교수 연구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3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개최에 따른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07년 활동할 임원(30명) 및 이사(62명)를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오는 3월 5~6일 태국에서 개최되는 아태가금학회 행사에 따른 참여 및 해외학술활동 지원펀드에 대한 활용계획 등을 검토하였다. 기타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논의되었으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금학회지의 학술재단 학술

지 등재 여부는 2008년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질 좋은 논문 등을 통해 가금학회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회는 오는 4~5월중 춘계심포지엄 준비를 위한 임원회의를 2월 9일 대한양계협회 사무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고문 : 오봉국, 박근식, 한성욱, 정선부, 김순재, 최준구, 박영인, 유동준, 김선중
- 명예회장 : 강창원(건국대)
- 회 장 : 김기석(경북대)
- 수석 부회장 : 이상진(축산연)
- 부회장 : 김재홍(수과원) 박장희(사료협회) 윤정로(독바위농장) 한재용(서울대)
- 감사 : 김선구(부산대) 이태일(대호)
- 총무이사 : 손시환(진주산업대)
- 재무위원장 : 안형진(애그리브랜드퓨르나코리아)
- 학술위원장 : 이준헌(충남대)
- 편집위원장 : 류경선(전북대)
- 포상위원장 : 권준헌(수과원)
- 홍보위원장 : 김동진(양계협회)
- 기획위원장 : 이덕수(축산연)
- 국제협력위원장 : 한재용(서울대)
- 산학협동위원장 : 이상희(삼양사)
- 회원관리위원장 : 송창선(건국대)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될 듯

평당 3만~4만원 가량 부담하던 기반시설부담

금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농촌 축사, 종묘배양 시설, 양곡도정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등에 대해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11월 30일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농촌지역에 들어서는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 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퇴비사 △미생물배양시설 △양곡도정시설 등이다.

건설교통부는 축사 등 농민의 생산관련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업인의 생활활동과 관련되는 농업생산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와 버섯재배사 등 동물과 식물 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 공장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농림부

삼계탕 일본 수출 재개

전북 익산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

로 중단됐던 삼계탕의 대일 수출이 재개됐다.

농림부는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4일 이후부터 삼계탕 수입을 재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번 삼계탕의 신속한 대일 수출재개는 주일 한국대사관과 실시간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본 정부의 시관련 요구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삼계탕은 열처리된 식품으로 시전파와 관계가 없다는 국제기준 등 과학적인 근거자료와 국내의 철저한 방역조치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측의 수입재개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마 수출됐던 가금육에 대해서도 시잠복기(21일)를 감안, 10월 28일전에 도착된 것도, 일본측이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삼계탕은 7백톤(3백39만2천불)이며, 그 중 94%에 해당되는 6백57톤(3백11만8천불)이 일본으로 수출됐다.

한국농촌공사

닭고기로 ‘나눔행사’

한국농촌공사는 지난 13일 경기 의왕시 본사 구내식당에서 닭고기 시식행사를 마련해 안중운 사장과 본사 임직원 400여명이 점심으로 삼계탕을 시식했다.

한국농촌공사 관계자는 “이날은 ‘나눔행사’의 일환으로 홀로 지내시는 노인 등 어려운 이웃 45여명을 초청하여 함께 삼계탕을 시식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동절기 개인건강에 유

의하도록 ‘겨울철 건강관리’를 주제로 ‘선우찬 의원’ 최영국 원장을 초청하여 무료건강강좌를 열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공사는 앞으로 전국 각도 본부 및 지사별로 수요일을 ‘닭고기 먹는 날’ 및 ‘나눔-day’로 정해 지역 관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닭고기 시식행사를 갖는 등 닭고기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반대 TV광고 만든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영화인들과 농민들이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 한미 FTA로 인해 농민들이 받을 피해를 알리기 위한 TV광고 제작에 영화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농수축산 비상대책위’(농대위)가 기획하고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영화인대책위)가 제작한 이번 광고는 내년 1월 주요 공중파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경남 함안에서 광고 촬영이 진행됐다. 경남 함안 장안리의 주민들이 직접 주인공으로 참여한 이번 광고에는 ‘고향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을 달았다.

농촌에 사는 연로한 부모가 ‘한미 FTA로 농촌도 힘들지만 자식들이 더 걱정’이라는 심정을 도시에 사는 자식들에게 털어놓는 장면이 담겼다.

한편 영화인대책위는 이번 광고 제작을 위해 필름과 장비 등 5,000만원 상당의 순제작비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농협중앙회

롯데쇼핑과 축산물 공급·구매 협약



농협중앙회는 롯데쇼핑과 축산물 공급과 구매 협약을 체결하고 농협 회원축협에서 생산한 계란과 돈육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쇼핑에 계란은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이 공급하며, 돈육은 경기북부돈육광역브랜드 돈모닝포크(주관조합 파주축협 조합장 이철호), 논산계룡축협(조합장 임영봉), 고령성주축협(조합장 이왕조), 진안무주축협(조합장 배진수)이 공급한다.

한국마사회

닭고기·계란 소비 캠페인



한국마사회(회장 이우재)도 닭고기 소비 캠페인에 나섰다.

마사회는 AI 발생으로 양계산물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를 돕기 위해 전사적으로 양계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가졌다.

지난 9일 서울경마공원에서 입장객을 대상으로 구운계란(계란3개 1세트) 1만세트를 무료로 나눠줬으며, 10일에는 통닭쿠폰 2만장을 입장객에게 배포하는 한편 닭 요리 시연 및 무료 시식회, 계육 안전성 홍보도 함께 했다.

서울경마공원과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열린 이번 캠페인에서는 순수 국내 계란과 닭고기만을 사용했으며 마사회에서 직접구매를 통해 양계농가를 지원했다.

대한의사협회

AI 관리 및 대책 심포지엄



지난 13일 대한병원협회 회의실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질병관리본부의 주최로 AI 관리 및 대책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H5N1의 개요와 임상증상 및 전파방법에 대해 국립수역과학원 조류질병과 김용주 연구관, 시의 인체감염증에 대해 고려의대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AI 환자가 국내 발생했을 경우 병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시의 홍보방안 등에 대한 발

표가 이루어졌다.

닭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잠복기는 수 시간에서 3일 정도이며,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최대잠복기를 21일로 정하고 있다. 사료 섭취량이 줄면서 닭이 침울하게 졸다가 급격히 폐사수가 증가하는데 50%정도 폐사율이 나타나 기까지는 약 4~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TV 방송매체의 경우 인도 전염병 사례 등 적절치 않은 방식으로 뉴스가 보도되어 오히려 소비자에게 반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홍보해야 할 것이라는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산업자원부

매출동향, 닭고기·계란 소비 감소

시영향으로 11월 대형마트의 매출이 전년 동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11월 매출액은 전년 동원 대비 0.7% 하락했다.

상품군별로는 전년 동월에 비해 가정용품과 잡화는 6.7%와 4.2% 증가했으나 매출 비중이 큰 식품부분이 2.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식품부분의 감소는 11월 하순 발생한 시의 영향으로 닭고기 및 계란 소비가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매출 비중이 높은 신선식품의 매출이 하락하면서 전체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FAO전문가, 전북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실시

농림부는 FAO(세계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전북 익산과 김제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의 원인이 철새와 연관성이 있는지 12.14일부터 19일까지 현장을 방문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고 12.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FAO 수의역학전문가인 Dr.Julio Alejandro Pinto Cortes, 야생동물전문가 Dr. Martin Gilbert 등 3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역학전문가 및 환경부 야생동물전문가들과 함께 시 발생농장과 인근 철새 도래지 등을 방문하여 철새 서식상황을 조사하고 철새 분변 등 시료를 채취하였다.

FAO 전문가에 의하면 조사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이번 시 발생 원인이 철새에 의한 것인지 확실히 규명할 수는 없었다고 밝히고, 현 단계에서는 기타 유입경로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는 채취된 시료에 대한 FAO 표준연구소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등이 완료된 이후 FAO본부가 한국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월간양계 독자분들의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 : 닭에 대한 이야기, 정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등...

분량 : A4용지 1.5매(10포인트)

※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